

대학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1971년도의 회고와 전망—

임 중 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 서 론

辛亥年인 1971년을 다 보내고 새 해를 맞는 시기에 대학도서관계는 지나간 1년간 얼마나 발전되어 왔으며 또 어떠한 원인이 아직도 대학도서관계의 향상에 차질을 주고 있는가. 돌이켜 1년간의 업적을 바라보며 반성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니며 회고와 반성은 앞으로의 크나큰 채적질이 될 것이다. 대학도서관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1945년 해방이후 26년이란 세월이 지나 활동기인 청년기에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시절 5살 때에 6·25동란이란 혹독한 난에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국민학교 교육을 받을 (1953년 휴전 이후) 8살 이후 우리 도서관계는 힘차고 새로운 의욕으로 도서관계의 재건과 전진을 굳게 맹서하고 끝끝하게 국민생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일꾼으로 이제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다. 이 중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과 아울러 여러가지 시행에 있어 아직도 만전을 내포하고 있지만 대학설치기준령의 도서관 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관중에 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있으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있어서 교육 및 연구활동이 행하여지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다. 대학이 문화의 계승과 창조, 전달과 발전의 요람이요,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과 학문의 상아탑인 이곳에 위치한 대학도서관은 그 지적 자원의 보존자요, 학문의 위대한 존속자로서 대학교육의 두뇌인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지닌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자료를 보관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의 효과적인 이용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교직원 및 연구자들에게 학적자료를 제공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 대학도서관은

말은 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대학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충분히 비치, 정리되어 모든 대학생, 교직원 및 연구자의 모든 필요에 응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 지난 1년간의 상황

A. 작년과의 비교

구 분	학교별	1970	1971
도서관수	대학교 (대학포함)	83	94
	초급대·전문학교	46	44
봉사대상자수	대학교 (대학포함)	174,274	204,605
	초급대·전문학교	31,632	37,528
독립건물	대학교 (대학포함)	35	52
	초급대·전문학교	8	17
과 석 수	대학교 (대학포함)	29,885	28,123
	초급대·전문학교	3,387	3,725
전문직원	대학교 (대학포함)	285	339
	초급대·전문학교	46	51
기타직원	대학교 (대학포함)	636	705
	초급대·전문학교	109	117
장서 수	대학교 (대학포함)	4,851,007책	5,315,729책
	초급대·전문학교	307,675책	310,166책
연간증가책수	대학교 (대학포함)	260,905책	312,822책
	초급대·전문학교	41,956책	41,990책
잡지 수	대학교 (대학포함)	21,659종	25,240종
	초급대·전문학교	961종	847종
신문 수	대학교 (대학포함)	3,757종	3,858종
	초급대·전문학교	490종	525종

연간 이용자수	대학교 (대학교포함)	3,641,713	4,395,906
	초급대· 전문학교	589,597	494,935
연간 이용책수	대학교 (대학교포함)	3,333,992책	4,470,978책
	초급대· 전문학교	719,694책	603,803책
자료 예산액	대학교 (대학교포함)	174,671,182원	225,151,910원
	초급대· 전문학교	24,580,942원	36,380,340원
기타 예산액	대학교 (대학교포함)	90,842,999원	149,245,230원
	초급대· 전문학교	25,381,605원	28,417,860원

B. 대학도서관대회

매년 각 도서관의 자질을 높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각 주제를 발표하며 한발 더 전진하고 하나의 좋은 결실을 모색하고자 하는 도서관대회의 금년도 개최는 예년과는 달리 각 관종별대회를 한군데서 개최한 전국도서관대회를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대학교의 대학극장과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도서관대회 첫날은 개최식에 이어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이신 백낙준박사의 「지적 자원 개발과 정신혁명」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와 이재철교수의 「이조 문헌지의 직능과 그 사명」이란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 주제 강연은 새로운 도서관개념중 참고봉사활동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개념은 현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 보면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의 도서관직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홍문관지(弘文館志) 또는 실례를 예거한 세종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듯이 참고활동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따라 참고활동이란 개념은 근대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다만 참고활동의 기능이 사대와 지역과 또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날부터는 각 관종별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고 셋째날에는 전체토의에 이어서 7항목에 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중 대학도서관분과는 중앙대학교 학생회관내 시청각교육실에서 이규범선생의 사회로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이어서 주제발표가 있었다. 처음에 부산교육대학도서관장 이규범교수의 「대학도서관 사서의 자질」이란 주제로 대학도서관의 사서의 자질은 진실한 인간성과 우수한 교수에 손색이 없는 지도성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서의 자질은 일생동안 계속적인 자기 수련과 노력으로 향상 되어 나간다고 결

론하였다. 또 하나의 발표는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손정표씨가 「신분·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유인체제(誘因體制)현황과 개선방향」이란 것이었다. 이는 사서직에 대한 ① 보수 ② 복지제도 ③ 단체조직활동 ④ 인사문제 ⑤작업조건 등의 향상을 가져와 많은 유능한 인재를 사서직에 종사케하고 또 이들 사서들의 의욕을 높여 도서관에 종신까지 봉사케하여 사서직에 부여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대학도서관 사서직 T O 확보 문제를 비롯한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전체 도서관 건의 사항 7개중 대학도서관에 관계된 것을 추리면 사서직급 분류의 재조정과,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요망을 건의한 「각급 도서관 사서직 임용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처우 개선 요망」과 「대학 교양학부 과정에 도서관학 및 문헌 이용법 강좌 설치 요망」 「도서관 운영 여건의 개선 요망(도서 구입비 및 예산건)」 「도서관법 개정 요망」 등이었다.

C. 국립중앙도서관 판장 및 사서장회의

대학도서관이란 같은 관종에서도 동질의 설립자(관립, 공립)에 의해 세워진 국립중앙도서관의 판장 및 사서장 회의가 해를 거듭하여 개최되어 그들의 현안인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련 회의가 금년에는 6월에 충남대학교에서 그리고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북대학교에 「사서직제 문제」 「사서수당 문제」 「한국학 서지 작성 문제」 「도서비 예산 증액 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의 및 대책을 토론했었다.

D. 의학도서관협의회

1968년 6월 18일 각 의과대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 등 의학을 다루는 수개 도서관이 모여 의학관계 공동의 발전을 위해 결성되었던 의학도서관협의회는 지난 5월 19일 카톨릭의과대학 강당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①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와 결산보고 ② 1971년도 사업계획 심의와 예산심의 ③ 정관개정 등과 금년도 사업으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사서로서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서교육, 추계학술대회와 각 의학도서관 장서의 종합목록 작성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E. 도서관 상호협조

전체 도서관 또는 관종별 도서관 사이에 자료정보, 자료교환, 상호대차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도서관 상호간에 협조의 결과는 도서관자료의 유효 적절한 활용 봉사를 위해 가치있는 일이다. 이러한 도서관 상호협조에 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진 후 관종의 구애 없이 수개의 도서관이

협의를 거친 후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이미 첫체편을 발간한 바 있는 국내 도서관 소장의 외국자료 종합목록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도서관의 상호협조를 위하여 금년에 계획되어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있다. 이는 어떤 가까운 지역내에 있는 대학도서관 사이에서 협조를 통해 각기 도서관 소장 자료의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함과 동시에 이의 이용 봉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생산하고 비록 그 상호협조 도서관이 어느 작은 지역에 국한한 것이지만 그가 발산하는 학적 가치는 크게 빛날 것이다. 이러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및 서강대학교의 삼개 대학도서관 사이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 삼개 대학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종합목록작업이 진척되고 있다.

3. 회고 요망

A. 건 들

가) 도서관수

197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1971년도의 대학도서관(초급대학, 전문학교 포함)은 9개관이 증가하여 94개관이 된 반면에 초급대학(전문학교 포함)은 2개관이 줄어 44개관으로 총 138개관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협회의 통계자료인 「한국의 도서관」에 기준한 숫자인데 실제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으면서 조사보고에 응하지 않아 숫자가 작은지 모르겠으나 통계상에 나타난 전국고등교육기관수(종합대학교, 단과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교육대학, 간호학교, 대학과정각종학교)와 대조하여 볼 때 아직도 미달 상태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각종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나) 독립건물

대학도서관으로서 단독 독립건물수는 작년도의 43개관에 비해 금년은 26개관이 증가한 69개관으로 늘어났다. 물론 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에 독립건물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그보다 우선 자료 내용의 충실과 원활 민첩한 봉사면에 있지만 그래도 학교의 일반 건물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보다는 독립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 또 독립건물로 발전되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의 역할이 그 대학교육에서 증대해지고 업무가 확장 되어진 것을 의미하며 대학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대학도서관으로서 소장자료의 봉사에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건물이 요망된다. 독립건물 설립시는 가급적 대학 구내의 중심위치에, 그리고 대학 전반의 장래 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과 함께 장차의 증축 확장 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B. 도서관자료

가) 장서수

도서관자료중 도서자료의 장서수는 작년보다 동양서에 있어서 43,346책이 증가된 3,204,133책이며, 서양서는 423,867책이 증가한 2,421,762책으로 총 467,213책이 증가하여 총 장서수는 5,625,895책이 됐다. 이 총 장서수를 대학교 재적 학생수 201,436명에 비교해 보면 학생 1인당 27책이란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 1968년도 일본도서관협회 통계에 나타난 1인당 42책에 비해 15책이란 부족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5조제2항에 「각급학교의 시설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의 근본이 되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제3항에 「도서는 학생 1인에 대하여 30권 이상으로 하되 학과당 5,000권 이상……」이란 규정에 대해 아직 학생 1인당 3권이 모자라며 이는 전체 대학생 수에 비해 60만권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 총 학과수 2,299에 매학과당 5,000책으로 계산하면 약 반수에 도달되는 현상이다.

나) 잡지와 신문

잡지는 전년도에 비해 3,457종이 증가한 26,077종으로 나타나 있으며 신문은 106종이 증가한 4,353종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잡지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한 「학술잡지는 학과당 5종 이상으로 비치할 것」에 비하면 총 학과수 2,299의 총 수요량을 배 이상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자료 구입비

도서관의 자료는 도서자료 및 비도서자료 등을 포함하여 자료의 충실, 우수한 비치는 대학도서관이 목적하는 심오한 학술연구에 이바지할 봉사면에 큰 영향을 주며 이의 내용 및 수량에 따라 그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학적연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자료도 사실상 그를 비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산이 도서관자료 구입면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양질의 도서관자료를 준비 봉사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구입비는 작년에 비해 약 31%인 62,280,126원이 증액되어 총 구입예산액은 261,532,250원이었다. 이를 201,436명에 할당하여 보면 학생 1인당 약 1,300원꼴이 된다.

도서관자료에 요망되는 것은 첫째 대학도서관 설치기준령에 도서와 학술잡지수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시각자료와 청각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들 자료도 교육면에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면에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액은 매년 책정되는 학교의 예산정책을 수정하

여 학교의 경상비 총액의 몇 %를 정하여 도서관자료 구입 예산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여지껏 대학도서관의 비치도서는 문교부에서 숫적으로만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 당국은 숫자적 충실에만 쫓기는 형편이었다. 차체에 도서관자료 구입 예산액을 대학교 총 예산액 몇 %로 규정하고 문교부 당국에서는 과거의 숫자적 대학설치규정을 도서관자료 구입비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 당국은 과거의 한정된 예산액으로 학생수에 비율인 장서수 채우기에서 떠나 자료의 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책정된 예산액이 그 대학 학문연구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건에 대해 충당되어야 한다면 그를 비치키 위해 과감히 구입 비치하여 도서관자료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좋을 것이다.

C. 직 원

대학도서관에 봉직하고 있는 직원중 전문직원은 작년엔 비해 59명(대학 54명, 실업고등학교, 초급대학 등 5명)이 증원되어 총 390명이며, 비전문직원은 77명이 증원된 822명이며 총직원수는 1,212명이 됐다. 전문직원은 대학도서관 총 직원수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13% 증가한 셈이다. 또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총합한 도서관 직원수는 전체 대학의 직원수 10,437명에 비하면 겨우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 직원수는 대학교의 총 봉사대상자수 211,873명(학생수 201,436명과 교직원수 10,437명)과 비교하여 볼 때 도서관 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는 254명 꼴이 되며, 전문직 390명을 대상으로 한 봉사대상자수는 전문직 1인당 543명이 된다. 이러한 도서관 직원의 수적 상태는 심오한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상아탑인 대학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파소한 감이 있다. 현재 도서관의 업무는 학계의 전진과 새로운 학술적 업적의 발견,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출판 및 제반 자료의 총수적인 발간물 등의 처리 및 봉사는 물론 이들 1차자료를 종합하여 정보 봉사를 전제로 한 2차자료의 작성, 계몽 등, 과거의 개괄적, 포괄적 봉사범위를 초월하여 세밀, 소주제적으로 세분화 하는 업무량과 더구나 앞에서 비교한 봉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도서관 직원의 수로서는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D. 봉 사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계획수행을 도우며, 자료의 이용봉사와 이에 따르는 필요한 물적 시설과 설비를 준비 제공하며, 학생이 효과적으로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장래 그들의 지적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자립학습의 습관을 육성하며, 교과 이외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독서를 권장하고, 교수진의 수업을 도우며 교수진이나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 따르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봉사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봉사면에 있어서 전년과 비교하면 도서관 이용자수는 659,531명이 증가한 4,890,841명이며, 이용한 자료수는 관내 대출에서 356,109책이 증가된 2,888,227책이며, 관외대출은 664,966책이 증가한 2,186,484책으로서 학생 1인당 자료 이용책수는 25책 정도이다. 학생들이 관내에서 자료 이용시 이용되는 열람좌석수는 31,848석으로 한개의 좌석당 1년에 154명의 학생이 이용한 셈이 된다.

4. 결 언

A.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봉사면

모든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이 자료의 봉사면에 있으며 그가 소장한 도서관자료를 적절히 이용시켜야만 도서관이 맡은 본분을 다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그 맡은 바 최고 학부의 학술연구의 뒷바라지를 해 줄 적절한 자료의 봉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三의 D항에서의 봉사는 시설면으로서의 열람좌석수와 일반도서자료의 관내 및 관외 대출상황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봉사 대상 자료란 비단 일반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 이외로 여러가지 봉사 방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자료의 관리방법도 여러가지이며 이에 대한 요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도서봉사

특히 대학교육의 목적은 학문의 연구이며, 학문의 연구는 자료의 조사연구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런 자료의 조사연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참고봉사를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백과사전, 편람 등등 기타 학문연구에 참고할 자료를 비치하여 교수 및 학생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참고도서실의 설치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거의 설치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참고봉사 활동이 부진 상태에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학생들의 참고 질문이 그리 많지 않으며 둘째 참고도서실의 목적과 실제 이용방법을 몰라서인지 참고도서의 이용은 비켜놓고 단순히 일반열람실 보다 좋은 실내의 환경 조건만으로 이 참고도서실을 이용하는 상태이다. 즉 참고자료 이용을 위한 참고도서실 이용이 아니라 일반도서의 열람실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깊이 참작하여 일반도서에 비해 고가이며, 학술연구에 유익하게 참고가 될 참고도서의 이용 봉사에 대해 연구노력하여 참된 참고도서실의 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정도서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대출봉사의 또 하나는 일반 도서 대출 보다 시간적 규제가 좁은 지정도서제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과제 독서용으로 지정된 도서를 교수들의 요청에 의해 별치 관리하며 일반도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용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정도서는 학과의 교과목과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독서의 폐단을 없애고 시간제 대출에 의하여 도서자료의 이용순환을 높여 그의 연구효과를 전체학생에게 보편화되기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도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과반수에도 미달인 형편으로 통계상에 나타나 있다. 또 그나마 지정도서제도가 원활히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한 교수들의 불이해와 강의계획과의 연관성 불유지 및 장서나 시설의 미비 등에 원인을 들 수 있다. 이의 해결은 장서 및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나 더 긴요한 것은 각 교수들이 도서관을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의 담당 사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 주제별 도서 열람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자료의 소장처는 일반서고, 참고도서실 및 지정도서실 등에 구분 소장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폐가제인 일반서고의 소장 도서를 일반 학생에 개가제로 공개열람하게 하여 자료 검색에 있어 과거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방법도 고려할적 하다. 물론 도서관 개중에는 일반서고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학생들이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케 하는 개가제를 사용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란 소규모의 도서관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종합대학교의 도서관의 장서가 무한대로 증가하였을 때 꼭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 대학교육의 성격, 시대성 및 열람요구 취향성을 고려한 주제별도서 열람실 즉 적어도 인문, 사회, 과학 등 주제별 자료를 구비한 열람실을 비치하여 자료의 제공 봉사에 일보 전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B. 직원 대우 문제

훌륭한 도서관 건물에 귀중한 도서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건물을 운용하고 시설을 활용하며 자료의 처리 및 자료의 봉사를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도서관운용을 기할 것이다. 아무리 산업형편이 일어나고 전자기계가 도달 하였지만 그의 모든 조작, 운영은 인간인 것이다. 특히 금년의 도서관대회에서의 주제발표가 각 관중 구별없이 사서적

의 자질문제와 사서적의 신분인사문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도서관직원인 사서적에 대한 대우문제가 개정해야 할 시기에 도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방안을 펴고 끝은 맺는다.

가) 사서적 수당 지급 문제

사서적의 직무내용이 대학교의 일반적과 달리 정선면, 위생면, 학술면 및 과중한 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니만치 근무조건을 감안하여 사서적 수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도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적 수당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직에 교수직위 대우 문제

대학도서관의 전문직 사서는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이 학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검색안내, 정보근원의 색출방법 제시, 자료의 통일적 정리 등과 철사없이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간행되는 모든 학구에 필요요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느 누구에 필요요 것인가를 전제로 항상 그 자료의 봉사에 관한 것을 연구 실행하고 있다. 따라 대학도서관의 전문직사서는 그 학구적 연마에 있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연구의 방법을 지시하는 교수적과 그 결과로는 동일하며 전문직사서는 교단에 서지 않는 교수인 것이다. 이런 전지에서 전문직 사서의 대우를 교수적의 지위와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 전문직사서들에게 「도서관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지며, 사서들의 교육적인 역할이 크다」고 인정하여 교수들과 같은 자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교수적 대우 문제는 금년의 도서관대회에서 건의된 「대학교양부과정에 도서관학 및 문헌이용법강과 설치요망」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라고 하여 이러한 교수적 대우를 받을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교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격으로서는

- 1) 도서관학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2) 도서관학과 졸업자로서 타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3) 대학도서관에 어느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사서로 도서관학에 관한 저서 또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가 어느 특정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자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적 자체가 계속적인 연구업적을 쌓아 질적향상을 도모해야만 급진하는 학계의 진보와 보조를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검토에서 대학도서관은 그 소기의 목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이로써 대학교육 목적의 완수에 현재 보다 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Felix E. Hirsch가 의장으로 있던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기준위원회"(ACRL Committee on Standards)에서 「전문직사서는 교수의 직위를 가져야 하며 교수진이 갖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를 명기한다.